



'역마살' 민속적 소재 통해 인간 운명 다뤄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을이면 하늘도 더 파랗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들길에 나가면 황금벼 이삭들이 고요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지요. 가을햇살은 너무 뜨겁지가 않아서 좋고요. 산길을 오르다가 북쪽이 떨어지는 알밤이 마치 법문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가을이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란 시가 유난히 생각이 나요. 젊음의 뒷안길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나를 보아야 할 시간 같아서요.

편자: 말끝에 대어 붙이는 'U'자 모양의 쇠조각.편자를 새로 신긴 황소의 곁을 더 호기 있어 보였나.<황순원, 카인의 후예>

애둘다: 먼저 '곰바로 섣뚝 나아가지 아니하고 멀리 피하여 풀다'는 뜻이 있어요.(독일을 가로질러 유고슬라비아로, 터키를 에돌아서 인도로, 노중국경을 지나...)<최인훈, 총독의 소리> 또, '이리저리 방방 베풀거나 휘둘다'는 의미로도 쓰여요.(성호가 가져왔을 용건이 궁금하면서도 쓸데없이 엉뚱한 데에서만 방방 에돌고 있는 자가가 딱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꾸우쳐졌다.)<황순원, 움직이는 성>

쌤님: '상사님이 선비를 부르던 말'로 '쌤님'이라고도 씁니다.(나라 상감님도 어찌 못하는 일을 쌤님이 걱정하신다고 안 될 일이 되겠습니까.)<박경리, 토지> 또 '얕전하고 고무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기도 해요.

인명옥(시인·고양에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김동리 작 '역마'

김동리(1913-1995)는 한국의 통속적 세계를 토대로,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많이 남겼죠. '역마'는 1948년 <백민>에 발표된 김동리의 단편소설로 이른바 역마살한 곳에서 편히 지내지 못하고 늘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액운으로 표상되는 '당사주'라는 동양인과 한국인의 깊은 운명관을 형상화한 작품이죠. '역마살'이라는 민속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다룬 이 작품은 김동리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는 '무너도', '황토기', '바위' 등과 함께, 전통 지향적인 면모를 잘 보여 주고 있는 초기 대표작 가운데 하나예요.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꾸려가며 혼자 살고 있는, 마음씨 착한 옥화는 아들 성기의 타고난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사주팔자에 의해 역마살이 끼면 집에 머물지 못하는데 이를 지우기 위해 성기가 열 살이 되면 해에 쌍계사란 절에 보냈다. 어느 날, 나이가 예순도 훨씬 더 넘은 체장수 영감이 과한한 딸을 데리고 옥화네 주막으로 와서 딸 계연을 당분간 맡기고 떠난다. 그리고 옥화는, 성기가 스님이 되어서도 못다 풀 살을 책장사를 통해서 풀어 보려고 장남에는 책장사를 시킨다. 계연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들려주다가 성기와

마주 보게 되고, 성기는 갑자기 가슴이 떨리고 눈에 핏물이 맺히게 된다. 그러다가 성기와 계연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성기가 결혼하여 역마살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옥화는 아들 성기를 정착시키려 한다.

어느 날, 계연의 컷바퀴에 난 사마귀를 보고 놀란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옥화가 명도를 찾아가 알아본 바로는 계연이 옥화의 이복동생이라는 것이었다. 체장수 영감이 돌아와 계연과 함께 떠나게 되고, 결국 성기와 계연의 사랑은 천륜에 의해 운명적으로 좌절된다.

전통지향적 면모 보이는 대표작 동양·한국인의 깊은 운명관 형상

옥화는 '체장수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이 화개장터에 와서 하룻밤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과 계연의 왼쪽 컷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성기에게 이야기 한다. 성기는 이 일에 충격을 받고 심하게 앓게 된다. 그러나 성기는 결국 그 병을 이겨내고는 옛판을 지고 옥자배기 가락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운명에 순응, 화개장터를 떠난다.

화개장터를 배경으로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운명의 순응과 그에 따른 인간의 구원을 주제로 나타내고 있지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주어진 역마살에 둘러싸여 있어요. 또한 소설의 배경인 화개장터 역시 역마살이 긴 장물쟁이들의 집결지이죠. 이 역마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혼을 통해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공 성기가 사랑하던 계연이 옥화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성기의 이모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결합은 불가능해지게 되죠. 성기가 역마살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유랑의 길을 떠나는 결말은 운명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한국적인 운명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죠. 인간의 운명을 자연의 순리에다가 생의 리듬을 무리 없이 조화, 결합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인간성 구현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작품은 운명에 의해 사회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변두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옥화나 그의 아버지인 체장수 모두 운명적으로 변두리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요. 아들인 성기 역시 역마살을 타고나 변두리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자 옥화는 불교의 힘으로 이 역마살을 극복하려고 성기를 쌍계사에 보내기도 하고, 또한 계연과 결혼시켜 정착하게 하려 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작품은 운명을 거역하기보다는 거기에 슬기롭게 순응함으로써 생의 리듬을 얻고 있는 인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것은 작가의 인생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

인명옥(시인·고양에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당과 교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종교차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친구와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평행하게 말싸움을 벌여요. 좀처럼 관계회복이 어려워지고요. 친구와 잘 지내고도 싶고 각자의 종교도 잘 이해하고 싶은데, 친구가 너무 심하게 부처님을 욕하는 게 정말 화가 나요. (D: 비밀~)

이예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 친구가 부처님을 욕하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성인이란 함은 못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인데 자신의 성인은 훌륭하고 남의 성인은 저급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이 부족해서입니다. 남은 훌륭한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익혀서 친구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이예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저도 종교가 기독교인 친구가 있는데(그 예는 심지어 토대신앙이예요). 이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싸울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규칙을 정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예에 문수교리반이라고 있는데요. 들어가서서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심을 권합니다. 내가 어떤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열전보다는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무조건 반박보다 친구가 자신의 종교를 말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 마음을 보이면 우리종교를 말할 때는 친구도 들어주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 보세요. 아마 친구도 변해가리라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서서 그 친구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 보세요. 지혜로운 부처님 되세요.

금희사 인터넷 상담실 게시판

The comic strip consists of three panels. Panel 1: A man in a suit asks, '논술의 자신감! 만능요 (또는) 참역마살 (399) 역마살을 승혜한 해겔 (상) by. 경운조원'. Panel 2: A man asks, '다른 사상가들은 종교적인 설명을 했지만, 해겔은 속세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A woman replies,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왜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Panel 3: A man asks, '해겔은 인류를 거대한 하나의 개체로 생각했습니다.' A woman replies, '인류는 한 사람의 일체처럼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인간 존재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The man then asks, '인간의 존재이유는 뭘까?' and the woman replies, '역사, 역사가 답이다.' The man then asks, '인류' and the woman replies, '인류'.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휴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휴침대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 장수구들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제Q (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 (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트Q (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 (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160 엔틱침상 (홍맥반석)

163 카우치 (거실용소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 (홍맥)

168 신카우치 (황토흙)

161 신침상 (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 (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유희단지2동1001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 별도)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